

대선 양자대결 安, 다자대결 朴 우세

(철수)

(근혜)

한국지방신문협회 9사 공동 신년 여론조사 ▶ 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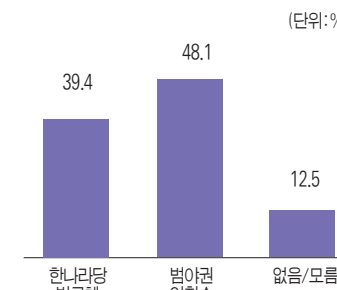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현역의원 지지 않겠다"

18대 대선(12월19일)을 약 1년 앞두고 대선주자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다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5명은 19대 총선(4월11일)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하고,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으로 인해 분열을 초래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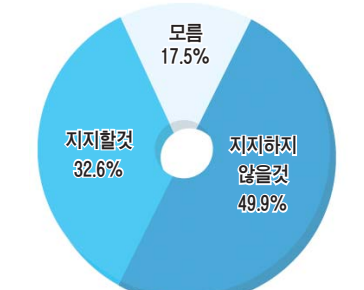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지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9%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강한

■ 박근혜 vs 안철수 대선기상 대결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현역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32.6%에 그쳤다. 오는 19대 총선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

■ 19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지지 여부



자의 50.2%가 후보들의 필립이를 보고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어 정당(이념) 31.5%, 후보 경력 11.5%, 인맥 1.9% 순이었다.

야권연대에 대한 전망은 의견이 크게 갈렸다. '연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이 37.3%였고, '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3.2%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 정권교체가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2.2%로 가장 많았고, '여당 유리'가 21.9%, '야당 유리'는 16.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대1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새 야구장 공사 착수

광주 무등경기장 축구장 자리에 들어설 새 야구장 건립공사가 기존 축구장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2만2000석 규모로 건립되는 새 야구장은 다음달 중 철거가 마무리되면 3월부터 본공사를 시작, 오는 2013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월기조종 = 광주시소방항공대 기자 이정곤·부기장 문연석)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엠블럼 확정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는 광주일보가 기념 엠블럼을 확정했다. 엠블럼은 광주일보의 테마 컬러인 녹색을 주조로 하고, 맑음과 비움의 상징인 청색을 사용해 광주일보 60주년과 함께 영원한 발전을 뜻하는 무한대(∞)를 형상화했다. 기념엠블럼은 올해 광주일보가 펼쳐지는 모든 기념사업과 특집기사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제작=광주여대 이만경 교수>

광주시, 차세대 가속기 등 2조1381억
전남도, 영암호 통선문 등 7조1659억

역대최대 국비예산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예산을 확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신성장 동력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2조156억원 보다 1225억원이 늘어난 2조13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 1조4668억원 보다 45.7%인 671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애초 정부예산에서 누락됐던 5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 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반영시킴으로써 광주가 국내 과학·기술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및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확보,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산업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또 도시광산기술원 건립(3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10억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185억원을 새로 확보했으며, 광주연구·개발 특구 육성과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 등 모두 22건의 사업에 966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올해 7조1659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확보한 7조895억원의 국비에 견줘 764억원

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1329억원(53건)의 예산을 새로 확보하거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정부 예산으로 F1 대회 지원비 50억원이 반영됐고, 영암호에 통선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300억원도 확보됐다. 양식업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한 것도 미래 식량자원 개발과 수산물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감미디어 R&D 기반구축 사업도 애초 정부예산에서는 제외됐으나 국회에서 15억원을 확보했고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사업도 60억원이 늘어난 680억원을 확보해 SOC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한 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문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민주당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에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4년 연속 합의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李대통령과 상종 안해" 조문대응 맹비난

북한은 지난 30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데 이어 1일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공동사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충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정

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군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3개지(紙)가

함께 실은 공동사설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5년 만에 재등장했고, 남북간 '조문갈등'과 관련해 비난도 실렸다. 또 '강성부흥' '선군'을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군대에서는 혁명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필뉴스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입학문의 (062) 605-1023

신춘문에 당선작 동화·시 ▶ 12·13면

창조

“창조”의 시작(history)

- 23년전 수채, 유화, 데생등을 중심으로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수강생들의 다양한 수상경력으로 전문적인 미술학도를 많이 배출하였고, 오랜 세월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진실한 창작의 진통을 겪어오면서 순수예술에서 생활공예품을 창조해내는 복합문화예술센터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 또한 창조문화예술협회는 2011년 상반기 마을기업에 공모해 동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조”에서 하는일

- 그림그리기(수채화, 유화, 데생, 독후화, 아동화, 파스텔, 일러스트)
- 컬러리스트(색채학)
- 글씨쓰기(POP, 캘리그래피)
- 공예만들기(종이접기, 종이조각, 펀치, 냅킨아트, 스텐실, 인두화, 엽서만들기)
- 다양한 캐릭터상품 개발(편백나무 이용)

“창조”의 미래, 꿈

- 마을기업 성장
 - 다양한 캐릭터개발(총장축제 캐릭터, 무등산엿길)
 - 지역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공동체적 삶 지향
- 생활공예의 확산
 - 전문가 양성, 취미반 운영(미술치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 다양한 교육교재 연구개발
 - 방과후 교사 교재 커리큘럼, 북아트 개발
- 수공예로 다양한 캐릭터 개발과 판촉물 대역생산

창조문화예술협회
동구마을기업, (주)무등산행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112-11번지
TEL: 010-8615-4152 / dytpq4545@naver.com